

T_F_008

말 한 마디로 복 얻은 노인

한경면 고산리, 1989. 8. 5 조사

제보자 : 李子榮(남·91세, 고산 1리 2반 2419)

- 신을 삼으며 사는 가난한 노인이 어느 날 장에 갔다가 돈을 빼앗겼는데 다시 찾아내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적을 만난다. 도적이 돈을 빼앗으려 할 때 마침 사또가 지나가게 되는데 노인이 도적들을 감싸줌으로써 도적들이 그 공을 알아 은혜를 갚아 그 노인은 잘 살게 되었다. -

흔 사름은 그런 사름이 있더라 허여. 가난한 사름인디 옛날은 초신이라고 삼양 신는 신, 그런 신만 삼으멍 풀양 사는 사름인디 경 정 허연 모다가니까 서른 냥 돈을 모드안. 그젯 돈은 소돈이 난. 서른냥 돈은 무거왔주게. 이젠 전대에 그 돈을 담양, 훈번은 어디 장엘 가그네 뭐 사당 먹을 걸 사나 입을 걸 사나 허젠. 서른냥 돈을 전대에 담고 장판엘 가서. 장판엘 가서 맹기는디. 엄부 럭 총각놈, 나한(나이든) 총각이주게. 엄부럭총각놈이 콜락이랜헌 것에 지름 등글등글 튼 짓누렁 헌 술을 훈 그릇 박새기에 걸엉 장판에서 돈 ?진 노인 보고 “당신 이 술 맡양 먹슈, 먹슈” 자꾸 부대기거든. 술을 훈착손으로 맡으젠 허민 박새기가 채질꺼고, 양착손으로 맡으젠 허민 돈전대를 알으래(밑에)놔야 맡으게 되고허니 돈전댈 알으레 낫 내불민 이 놈이 꼭 빼감칙허거든. 이제는 이거 무관아니라고 해서 돈전댈 알으레 놔돈 양착으로 술잔을 맡아가난 그 고에(새에) 첨 돈전대를 확 뺏앙 돌아나불거든. 이제 돈을 잃었지. 잃으난 돈은 잃어부렀지만은 술을 맡은 짐에 애. 게나저나 술랑 먹자고. 술은 들어싸두고 콜락짝만 가정 장판에 흐쏠 맹겸주게. 어떤 처녀가 강 말허기를, “이 영감은 우리집 술짝독 가정 맹겸네” 영 허거든. 경허난 그 아즈방 허는 말은 “너의 집의 술짝독이 왜 내 손에 올꺼냐” 허난 “그런게 아니라 저 우리 밧거리에 하영들 앗안 노름 햄슈. 노름허멍 엄부럭총각히 작박에 술 거령 나오더니 그 우리집의 술 작박이요.” 이젠 어느 놈 인 처리 몰랐지만은 그 처녀 근는 말로 도적은 심어질 거 아니라. “네 집은 어떻 행 가느냐” “요 아무딜로 행 가민 우리집인디. 밧거리에서들 노름들 햄수다” 이젠 그 처녀 말 들엉 그딜 강 보난. 밧거리집에서 훈판 노름들 햄따 말이여. 강 보난 그 돈 빼다 낫 돈을 앞에 무룩이(듬뿍)놨고 랜 허여. 영 배끼띠(밖에) 강 기척허난 돈 빼간 놈이 “하, 영감. 잘 오랐수. 당신 돈을 ?쎄(아까) 빼아당 내가 돈을 뺐으니 당신 이제 돈을 ?져가시요.” 영허거든. “나 경허맨 얼마나 ?져갈거 요?” “허거든에 저 안거리에 강 귀헌 걸로 내 쥐인보고 말헐테니까 강 짭찹슈” 이제 그 놈이 쥐인보고 “쥐인 있는 게요?” “아, 있네” “저, 이 영감 갔건 그 음식값은 내 갚을꺼니까 당신 달라 는냥 잘 안내시요” “경 허게” 이젠 거기 강 모음에 있는 걸로 줍센 핸 잘 먹었단말이여. 먹으난

이제 그 놈이 그 빼간 전대에 그자 무락이 담양 “가정 집에 가심” 돈을 주거든. 담아주난 돈을 드러매고 뭐사도 안하고 그냥 집에 오랐주게. 오는디 도적놈을 만나서. 도적놈 짓을 만났던 모냥 이라. 앞에 오는디 조름(뒤)에서 말험을, 서이오멍 말험을 귀에 들리기를 “저디 가는 사름헌티 가서 저 가정 가는 거 빼어오라”고. 지네끼리 말허멍 “아, 거 의복광 남루허게 입고 뭐 저 사름헌티 돈이 셔게?” “개도 강 보라”고 “?정가는 거 돈일거라”고 흐쓸 촛아강 돈을 도렌 허는 턱이 라. 말 고는 턱인디. 수또가 지나간다 말이여. 수뜬 말 우위 앗아도서 허는 말이 “어떤 일로 뭔 일이 셔서 그렇게 드투는 말들 허느냐” 허난, 도적놈들은 말 못허고게. 이젠 돈임재 허는 말은 “그런게 아니라 나 이 사름들신디 빛 갚을 거 있십니다” “빛 갚을 거 있는디 어찌 그렇게 허느냐” 허니 “빛 갚을 거 있는디 빛을 갚으랜 허길래 벌엉 갚으肯 햄습니다” 수또 허는 말이 “웃는 사람이 벌엉 갚으肯 허건 벌엉 물민 받젠 허지. 싸우민 소용있느냐” 경 골아든 물탕 그자 그말 골으난 수또 지나가분다 말이여. 이젠 도적놈들 서이허는 말이 “당신 어디 사느냐”고 “나 아무도 랑의 죄그만헌 초막살이에 신 삼으멍 사는 사름입니다” 허난 “당신 말헌 곡절이 고마와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당신의 공을 갚아야겠다” 고. 도적놈들이 “우리가 삼백명떼인디” 지네가 삼백명분 당이랜 헌거주. “삼백명분당인디 당신 입에서 도적이라 이러시맨 우릴 심엉 가서 취조허민 다 그 수정(數) 골아노민 삼백명이 다 곤란받고 죽을 모냥인디 당신 말 잘허기로 우리 삼백명이 살아시니까 당신 공을 갚을 거니까니 아무날쯤에랑 배롱이 불이라도 쌍 앗아시민 선나게 우리가 촛아 갈테니까 경행 당신 가라고” 보낸다 말이여. 경 보내난 가肯 헌 날짜에 불 배롱이 싸고 앗았더니 삼백명이 그자 의복이고 쓸이고 훈 짐씩 다 져갔단 말이여. 삼백짐이 들어갔어. 말 훈곡절 잘 허기로 잘 된 놈도 있다허여.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 제7회』, 1990, pp.239-241.